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 지원단’ 출범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서 개소식... 지역 일자리 거점 본격 가동
상당·취업 연계·기업 지원 등 통합 서비스... 고용 활성화 기대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전진기지로 주목받고 있는 새만금에 고용 문제를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문을 열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는 지난 31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 지원단’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등 60여 명이 참석해 새만금 고용 기반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새만금은 최근 대규모 기업 유치가 이어지며 고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

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2월 27일 새만금 일대를 고용특구로 지정하고, 고용 관련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일자리 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지원단은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 2층에 마련됐으며, 팀장과 매니저 3명 등 총 4명의 전담 인력이

상주한다. 단장은 (사)전북산학융합원장이 겸직하며, 전북자치도와 군산시가 총 4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 투입해 운영한다.

지원단은 입주기업의 인력 수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적기에 연계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고용정보망 구축 △취업박람회 개최 △고용촉진수당 지원 △고용협의체 운영 등 지역 고용 전반을 아우르는 ‘일자리 종합 플랫폼’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 지원단 설립은 새만금 고용특구 내 입주기업들의 고용수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입주기업이 적시에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용 기반을 촘촘히 구축하고,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는 지난 31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 지원단’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도, 금융특화도시 도약 위해 13개 금융기관과 협력 강화

국민연금·이전 금융기관과 간담회... 금융산업 발전 논의
핀테크 육성·금융중심지 지정 등 협력 방안·의견 공유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31일 전북 혁신도시에서 국민연금공단 및 도내 이전 금융기관과 함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북을 금융특화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고, 이전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해 SSBT은행, 프랭클린템플턴, 하나펀드서비스, 코람코 자산운용 등 주요 금융기관 관계자 16명이 참석해

금융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전북자치도는 간담회에서 금융중심지 개발계획과 핀테크 육성지구 지정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오는 5월 개최되는 제2회 NPS 포럼 및 9월 제6회 지니포럼 등 금융산업 관련 주요 행사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국민연금공단과 협력해 글로벌 금융기관 유치를 지속 추진해 온 성과를 설명하며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 △금융특화도시 브랜드 구축 △이전 금융기관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19년 SSBT은행과 BNY Mellon은행이 전주에 사무소를 개소한 이후 지난해 블랙스톤, 하인즈 전주사무소, 올해 코람코 자산운용 및 티시먼스파이어 등 총 13개 금융기관을 유치하며 금융특화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져왔다.

특히 작년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해 금융산업 육성 특례를 반영, 이전 금융기관에 대한 세무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인센티브를 강화한 바 있다.

프랭클린템플턴 전주사무소 전용배 감사는 이날 간담 자리에서 “전북자치도의 각별한 관심 덕분에 전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며, “금융중심지 지정 협력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전북이 금융특화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전 금융기관의 협력과 홍보가 중요하다”며, “이전 금융기관이 안정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금융 인프라를 확대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이전 금융기관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NPS 포럼·지니포럼과 연계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 박차... 도, 전북애향운동본부와 협력 강화

전북애향운동본부 제15대 총재 취임식... 전북사랑도민증 발급 확대 방안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애향운동본부와 협력해 ‘전북사랑도민증’의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전북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사람이려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전북사랑도민증은 전북 14개 시군의 주요 관광·문화시설과 음식점, 카페 등을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으며, 전북 투어패스 1일권이 기본 제공된다.

전북애향운동본부는 지난 31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전북애향본부 총재 제15대 취임식’과 ‘전북은행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유창희 전북자치도 정무수석,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 윤석정 전북애향운동본부 총재, 백종일 전북은행장을 비롯한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취임 간담회에서 제14대 이어 연임한 윤석정 총재는 출향도민과 함께 전북사랑도민증의 발급 확대와 활용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애향운동본부는 앞으로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출향도민을 대상으로 전북사랑도민증을 적극 홍보



전북애향운동본부는 지난 31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전북애향본부 총재 제15대 취임식’과 ‘전북은행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할 계획이다. 특히 무료 발급 혜택과 도내 68개 가맹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할인 혜택을 강조해 관심을 높일 방침이다. 전국 각지에 있는 출향도민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북사랑도민증의 가치를 알리고, 혜택을 보다 많은 이들에게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전북사랑도민증이 전북과 출향도민을

이어주는 의미 있는 매개체가 되길 바란다”며 “전북애향운동본부와 협력을 강화해 더 많은 분들이 전북사랑도민증의 혜택을 누리고, 전북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전북사랑도민증을 앞으로도 생생장터, 전북투어패스, 참참플랫폼 등 다양한 지역 플랫폼과 연계해 혜택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림피스킨 예방 총력... 4월 소 45만2000마리 백신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에서 사육 중인 소 45만2,000마리를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림피스킨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3년 고창(12건), 부안(1건), 임실(1건) 등 총 14건

의 림피스킨이 발생해 1,050두가 살처분되는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2024년부터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지만, 림피스킨은 흡혈곤충(파리·모기 등)을 통해 전파되는 특성을 고려해 본격적인 곤충 활동 시기인 4

월 전에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접종은 농가 규모에 따라 차별화된 방식으로 진행된다. 50두 이상 전업농은 4월 14일까지 농가에서 직접 접종을 실시하고,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4월 30일까지 공수의가 접종을 지원한다.

/이만호 기자

청명·한식 대비 특별경계근무 돌입

전북소방, 전 직원 비상응소 태세 · 100% 소방장비 가용유지 등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4월 3일부터 6일까지 청명·한식 기간을 맞아 산불 등 재난 신속 대응을 위한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남 산청군, 경북 의성군 등지에서 대형 산불이 연이어 발생했으며, 지난 26일에는 전북 무주군에서도 산불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산불 위험이 심각 단계에 접어들었다. 건조한 기후와 강풍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청명·한식 기간에는 성묘객과 상춘객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이에 소방본부는 해당 기간 동안 소방공무원 1,951명, 의용소방대원 2,806명을 동원하여 산림 인접 마을 등 화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예방순찰과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산림청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소방본부는 비상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전 직원의 비상응소 태세를 확립하여 100% 소방장비 가용유지를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 또한, 관서장 중심으로 현장대응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고, 빈틈없는 상황 관리에 집중 예정이다. 특히 산림 인접 마을 등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예방순찰을 강화하여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소방본부는 도민들에게 산불 예방을 위한 중요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첫째, 산이나 들판에서 불꽃이나 담배 등을 피우지 않도록 주의하고,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채 산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성묘 후에는 묘지 주변의 쓰레기나 불씨가 남아있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불법 소각이나 산림 인접지에서의 화기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며, 불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 크루즈 활성화 TFT 회의

새만금청, 전북자치도·군산해수청과 유치 전략 논의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정안)은 지난 31일 새만금 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전담팀(TFT)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해양수산청이 참여해 새만금 크루즈 인프라(기반 시설) 사업 추진과 세관·출입국심사·검역(이하 CIQ)을 조성하는 방안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 기관은 새만금이 동북아 크루즈 관광의 거점으로써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크루즈 터미널과 CIQ 시설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으며, 이를 위한 새만금 크루즈 터미널 조성계획, CIQ 운영체계 구축 방안, 국내외 크루즈 유치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만호 기자

특히, 원활하고 신속한 입출국 절차와 통관을 위한 CIQ 인프라(기반 시설) 구축 방안이 강조되었으며,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해 최적의 운영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전담팀(TFT) 회의를 통해 새만금 크루즈 활성화 정책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새만금이 글로벌 관광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두진 관광진흥과장은 “새만금이 글로벌 크루즈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프라(기반 시설)를 강화하고, 국내외 크루즈 선사를 유치하는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작은빨간집모기 감시망 가동... 10월까지 집중 조사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일본뇌염의 주요 매개종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 감시를 위한 ‘일본뇌염 유행예측 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제3급 법정감염병인 일본뇌염 주의보 및 경보발령을 위한 필수 사업이다.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4월~10월 완주 상관면 소재 축사에서 매주 2회 모기를 채집해 작은빨간집모기의 출현 여부, 개체 밀도를 조사한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축사·물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릴

경우,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발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는 뇌염으로 악화돼 치명적 후유증을 남기거나 사망(20~30%)에 이를 수도 있다. 현재 일본뇌염은 특이적인 치료법이 없어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으로 꼽힌다. 지난해 전북지역에서는 6월 18일 첫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돼 모기물림 주의보가 발령됐다.

올해는 전남·제주 지역에서 이미 작은빨간집모기가 출현하면서, 지난 3월 27일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은 모기 발생 밀도 분석을 강화하고, 일본뇌염 예방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도, 2년 연속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모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주관하는 2025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되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광역 4곳과 기초 21곳 등 총 25개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전북에서는 도청을 비롯해 남원시, 김제시, 무주군 총 4개 기관이 선정돼 총 1억2,000만원(도청 3,300만원, 남원

2,700만원, 김제 4,400만원, 무주 2,000만원)의 지원금을 확보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수탁협약을 통해 도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유류재산 발굴,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미활용 재산 대부 계약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해왔다. /이만호 기자

전기안전공사, 2025년 재·보궐선거 안전점검 완료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4월 2일 진행된 재보궐선거 시설 1,800여 곳의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투·개표시 정전 등 전기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설비와 부하설비, 비상발전기 등의 점검과 안전관리 체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만호 기자